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학석사학위논문

개혁개방 이후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증가와 내부 다양성에 대한 연구

2019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劉淑怡

개혁개방 이후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증가와 내부 다양성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재 열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학 과
劉淑怡

劉淑怡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01월

위 원 장 박 경 숙 (인)

부위원장 권 현 지 (인)

위 원 이 재 열 (인)

국문초록

비임금노동의 대규모적인 증가는 개혁개방 이후 제도적으로 불확실한 중국에서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비임금노동 내부의 다양성은 이른바 사회주의시장 경제 체제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에서 개인들의 직업전환 궤적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상이한 전환과정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구권 나라 혹은 러시아에서 비임금노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의 하향적 개혁에 의해 확산되는 반면에 중국의 점진적 발전패턴에서는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 규범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있어 본 연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뿐만 아니라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 즉 판시(關係)의 효과를 특히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내부 다양성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갖는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비임금노동의 구성과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비임금노동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직 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과,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한 뒤 비임금노동으로의 다양한 이동 결과(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체자영업자)에 각 요인, 특히 판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비임금노동자의 직업전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절반에 가까운 비임금노동자는 임금노동자, 그것도 주로 육체임금노동자와 서비스업종사자에서 전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비임금노동의 세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부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중국의 도시개발과 상업의 발전 덕에 상당한 수의 노동자가 도매업, 요식업,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고용주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육체자영업자들은

임시적인 육체노동을 하기 때문에 임금육체노동자에 비해 더 불안정적인 직장환경과 사회복지 보장의 부재를 직면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일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판시를 적극적으로 구축 유지할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높아진다. 또한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하는 데 비교적 쉽지만 판시에 대한 적극적인 구축 유지는 개인의 상향적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임금노동을 최초 직장으로 삼은 사람은 자주 식사초대를 할수록, 사업 중개자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가 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또한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가 높은 교육수준과 발달한 관계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가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비임금노동에 진입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비임금노동은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 모두에게 대안적 통로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개혁 기간 동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완충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아가 오늘날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날로 늘어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밑으로부터의 중국 비임금노동 발전패턴은 사경제와 공경제 간의 갈등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타개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개혁개방, 중국 비임금노동자, 증가, 내부 다양성, 비공식규범, 판시(關係)

학 변 : 2016-22066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5
제 1 절 중국의 노동시장의 변화.....	5
제 2 절 중국의 비임금노동자의 증가와 다양성.....	11
1.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11
2. 비임금노동에 관한 연구흐름	17
3.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의 부상	19
제 3 절 판시와 비임금노동의 관계.....	20
1. 연결망시각으로 보는 판시.....	20
2. 개혁기의 비임금노동과 판시의 역할.....	23
제 4절 연구가설	25
제 3 장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26
제 1 절 연구자료.....	26
제 2 절 변수측정.....	27
1. 종속변수	27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28
제 2 절 분석방법.....	31
제 4 장 분석결과.....	31
제 1 절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 및 직업체적	31
1.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	31
2.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직업체적.....	32
제 2 절 비임금노동자로의 전환	34
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4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6

제 5 장 결론	40
참고문헌	43
Abstract	49

표 목차

[표 1] 1988, 1995, 2002, 2013년 직업별 연평균소득 비교	10
[표 2]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비교	13
[표 3] 2016년 집단별 비임금노동자의 연평균소득	28
[표 4] 2016년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기초통계표 ..	30
[표 5] 2016년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세부 유형	32
[표 6] 노동자 최초 직장 - 현직 전환패턴	33
[표 7] 임금노동자 - 비임금노동자 전환패턴	34
[표 8] 2016년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	35
[표 9] 패턴별 다양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석.	39

그림 목차

[그림 1] 1986-2016년 중국 노동인구 중 사영기업주와 개체호 비율	8
---	---

제 1 장 서론

1979년, 중국 절강성에서 전국 최초의 ‘개체공상호 영업 허가’가 발급되었다. 38년이 지난 2016년에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Individual business)와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 private entrepreneur)는 전체 노동인구 중 10%를 넘는 8,239만 명까지 발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동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상가인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 점주와 ‘웨이신(微信)’과 ‘웨이보(微博)’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웨이상(微商)’이라는 개인사업자는 역시 2,135만명을 돌파하였다. 이들은 과거 국가에만 의존했던 고용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임금노동부문과는 구별되고 자율성을 지니는 비임금노동자라고 통칭될 수 있다.

이처럼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 등 비임금노동자의 대규모적인 증가 및 형태의 다양화는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었을 것이다.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의 중국은 노동력 이동을 금지하는 한편, 노동력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배치하는 ‘통포통배(統包統配)’제도와 배치 이후 종신 고용되는 ‘고정공(固定工)’제도를 채택하였다(장영성, 2007). 이로 인해 노동시장은 사라지고 노동자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장거리 운송 판매, 재판매 그리고 인원고용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식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로 취급되었다(Chen, 2006). 따라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비임금노동자의 양적인 확산 및 질적인 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또한 체제전환 이후의 중국에서 지속되는 권위주의적 체제와 확장되는 시장경제라는 모순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이해하려면 비임금노동자의 역할은 간과될 수 없다. 비임금노동자가 주역이 된 민간경제부문은 2005년부터 GDP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오늘날 비임금노동자가 중국 경제적 실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준다.

중국적인 비임금노동의 형태인 개체공상호나 사영기업주 등은 다른 국

가에서 관찰된 비임금노동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양상 및 확산과정을 갖는다. 연구사적으로 자본주의 국가, 또는 탈-사회주의 국가의 비임금노동은 뿌디부르주아, 비공식부문, 소규모의 자영업자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단순상품생산의 파괴와 중앙 집권화라는 이중 압력에 의해 뿌디부르주아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다(Steinmetz & Wright, 1989). 그러나 마르크스의 예측과 달리 1950년-1975년 사이에 노동인구의 대규모적인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일자리, 그리고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시각에서 비공식부문은 제3세계 국가에서 급속한 도시화의 결과로 생겨난 과잉노동인구로서, 이들의 증가는 저소득층의 확대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Todaro, 1969; Fields, 1975; Banerjee, 1983; ILO, 1984). 이런 의미에서 개발도상국의 비임금노동은 빈곤계층을 흡수하면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저소득층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성격을 보인다.

한편, 공산당 정부가 붕괴된 이후 동부 유럽과 러시아에서도 자영업자와 기업가가 등장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Rona-Tas(1994), Staniszkis(1991)를 비롯한 탈-사회주의 국가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동구권 국가와 러시아의 체제 전환 과정은 정치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 엘리트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기에 없었던 비임금노동을 사업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체제에서도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공산당 정부가 붕괴된 이후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엘리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권고에 따라, 시장 자본주의의 공식과 규제 체계를 정책화하기 위해 신속한 일련의 하향식 개혁 조치를 모색했다(Nee & Opper, 2012). Szelenyi(2015)^①은 이와 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의 하향적 개혁에 의한 기업의 등장과정을 "하향식 자본주의"라고 설명

^① 2015년 새로 발행된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서언. 중국사회과학문헌출판사.

하기도 했다.

중국의 비임금노동은 시장의 도입과 함께 확산되었다. 개혁으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노동인구는 느슨하게 조직된 비임금노동에 흡수되었으나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비임금노동은 자본주의국가 및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비임금노동의 양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그 확산 과정에 있어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논의들은 중국의 비임금노동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우선 일부 영역에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약화되고 있으나, 중국의 권위주의적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개혁이 완만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체공상호와 사기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에도 관료기구가 통제하는 국영기업들의 우세가 유지되었고 사기업에게는 다양한 차별과 규제가 가해졌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확산되었다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Nee & Oppper, 2012). 이에 Nee & Oppper는 중국 사기업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로 설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가들은 신뢰를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하며, 경쟁적 경제환경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 비공식 규범에 의존하였다. 관료적인 허레허식(red tape)의 영향과 재산권 보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지방정부의 계약법에 따라 사회적 규범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Nee & Oppper, 2012).

이른바 비공식규범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에 의해 배태되고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 발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적인 맥락에서 “관시(關係)”라는 변수를 사용하며, 개인간의 미시적인 연결이 비임금노동부문의로의 전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중국 사회에서의 관시는 개인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기도 한다(Fei Xiaotong, 1948). 이러한 관

시는 사회적인 규범을 형성하며 경제적인 행동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는 판시를 구축하지 않으면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Yang, 1994; Davis et al., 1995, Luo, 1997). 특히 비공식적 규칙으로 가득 찬 시기에 비임금노동자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탐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미시적 연결을 필요로 한다(Yueh, 2009).

제도적인 환경과 개인적인 행동의 상호작용은 중국적 맥락에서 비임금노동의 등장과 확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특수한 제도적 환경에서 개인들의 직업전환 궤적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과정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판시의 효과를 중심으로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다양성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2016년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를 사용한다. 우선 중국의 비임금노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반적인 비임금노동의 구성과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직 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와,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한 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이용해 패턴별 비임금노동으로의 상이한 이동 과정에 각 요인들, 특히 판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중국의 노동시장의 변화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하의 중국에서는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 확립에 필요한 새로운 고용제도와 임금제도를 확립하기까지 중국사회는 수많은 논쟁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노동시장은, 과거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확립되었던 각종 제도의 영향으로 불완전 노동시장이다. 다양한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지배적이다(장영석, 2007).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노동시장의 성격은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 전통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는 호구제도를 통해 농촌 노동력의 도시유입과, 도시 내부의 노동력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또한, 국가가 노동자의 채용 및 배치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즉 ‘통포통배(統包統配)’ 제도도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때문에 직원 모집은 노동부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업종 혹은 지역으로의 노동 분배는 국가 노동부에서 일정하게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재분배 체제 하에서 제도화 구조화된 ‘단위(單位)’를 통해 국가가 직원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단위’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국영기업, 사업부서, 행정부서는 직원을 ‘중신고용’ 하는 ‘고정공(固定工)’ 제도를 채택했다 (Li, et al., 1996). 게다가 장거리 운송 판매, 재판매, 인원고용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식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로 취급되었다. 1966 년 개체공상호를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면서 수많은 개체공상호가 정부에 면허를 반환하고 직업을 바꿨고, 결국 1969 년에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체공상호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다. 이러한 엄격한 체제 하에 이루어진 경제정책은 노동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노동인구에 대한 수

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가 날로 심해졌다(Bian, 2001; Chen, 2006; 장영석, 2007).

1978년에 개혁개방 이후 약 15년동안 시장 및 거래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지만,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Naughton 1995, Zhou 1995, Zhou, et al., 1997). 이 시기에 중국은 ‘통포통배’ 제도와 ‘고정공’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책을 점진적으로 내놓았다. 이를 테면, 계약제의 영향으로 국영기업과 사업부서에서는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권한이 생겼다(Bian, 2001). 또한, 지방정부와 지방정책도 노동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초 이른바 비공유제(非公有制)의 비농업 부문의 부상은 주로 국영기업의 고용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지방정책에 기인한 것이었다(Zhou, et al., 1997). 예컨대 농촌지역은 개혁개방 직후 개별 농가에 토지를 장기간 임대-경영하는 ‘농가 청부 경영제도(家庭承包責任制)^②’ 를 채택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의 농촌 잉여노동인구가 자영업, 향진기업, 외자기업 등 비임금부문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문화대혁명 이후, 정치의식 개조와 도시 인구 분산 목적으로 추진된上山下鄉(上山下乡) 캠페인에 의해 농촌으로 보내졌던 청년들이 도시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불완전 고용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하급기관은 노점상과 인력거 운송 등 다양한 미등록 영업 행위를 허용하였다(장호준, 2011). 또한 1981년 국가는 공식적으로 개체공상호라는 경제활동 주체 범주를 도입하고 1987년에는 사영기업을 승인하는 등, 비임금노동의 성장을 도모하였다(Bruun, 1993; Young, 1995; 장호준, 2011).

1992년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 ‘사회주의 시장경제’ 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동년, 덩소평이 중국 남부에서의 연설을 계기로 시장조정 중심의 구조 개편이 단행되었다. 노동시장에서는 자유로운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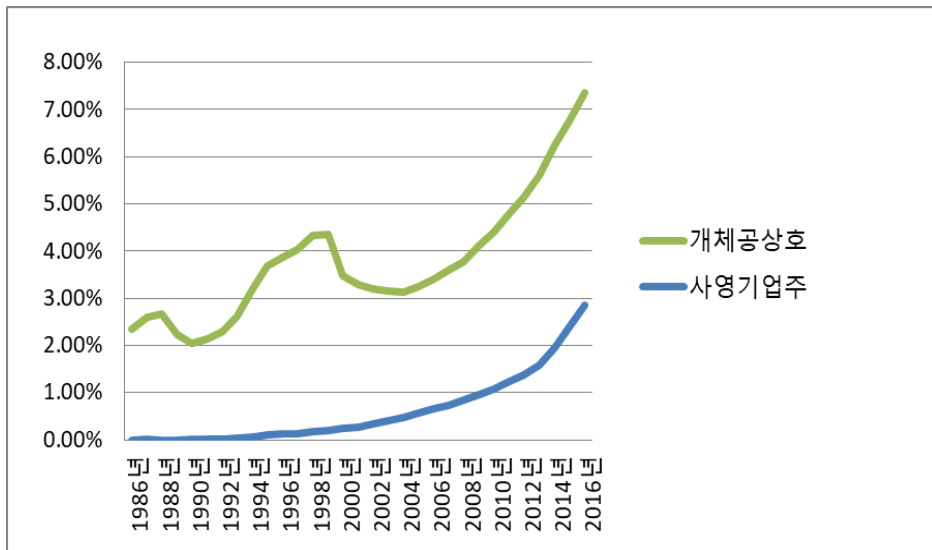
^② 1978년, 안휘(安徽)성 소강(小崗)촌에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8명의 농민이 보증서에 사인했고 토지를 청부했다. 농가 청부 경영제도는 이로부터 발단되었다.

업이동, 전체 노동자 대상으로 확대된 계약제도, 취업경로의 다양화 등이 실현된 한편, 국영 기업의 낮은 경쟁력과 심각한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제도로 인해 ‘고정공’ 제도는 폐기되었다(Chen, 2006). 이로 인해 대량의 국유부문의 노동자가 ‘실직(下崗)’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1990년대 중 후반기부터 민간 경제의 경영 범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제한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공무원과 지식인들이 창업에 대거 합류하는, ‘샤하이(下海)^③’ 현상을 일으켰다. 또한 1997년 제 15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혼합 소유권’이란 개념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비국유제경제가 보완적인 경제 부문에서 격상되어 국유제경제와 함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취급된 현실을 반영한다. 혼합 소유권으로 인해 민간 경제, 국영 경제, 대외 경제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소유제에 대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논란도 사라져 갔다. 2003년 이후, 중국의 비국유제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36개 항목이 담긴 일련의 문서^④들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비국유제경제가 특정 영역에서 직면했던 불확실한 장애물도 점차 제거되었다.

^③ 이는 시장이라는 ‘바다’에 뛰어든다는 뜻이다.

^④ 2005년 ‘비 공유 경제 발전을 장려하는 국무회의의 여러 의견(非公36條)’, 2010년 ‘신 비공36조(新非公36條)’, 2013년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사안에 관한 결정’, 2016년 ‘개체호 사업등록증 및 세금 등록 인증서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림1>1986-2016년 중국 노동인구 중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 비율



◆ 출처: 국가통계청, 중국사영기업발전보고서(中國私營企業發展報告), 중국사영기업경제연감(中國私營經濟年鑒)

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개혁개방 이후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증가해왔다. 1978년 중국의 개체공상호는 14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1986년에 개체공상호는 이미 1,211만까지 증가했으며 그 당시 전체 노동인구 51546만 중 2.35%를 차지하였다. 2000년 이후 비임금노동부문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되었고 2016년에 개체공상호는 5,930만으로 전체노동인구 80,694만 중 7.35%를 차지하였으며 사영기업주(2,309만)의 비율은 3%에 가까웠다. 2016년 기준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10%를 넘었는데, 이는 행상, 자유직업, 웨이상과 같은 국가통계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유형을 제외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 내 비임금노동자의 비율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임금노동 내부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과 신흥 기술 산업의 발달로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은 8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기 때문에 개체공상호로 등록되고 있지만 투자금액, 경영방식, 그리고 업주의 소득 수준에 있어 일반 개체공상호와 매우 다르다(Li, 2005). 폭증하는 소규모 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개인상가는 정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14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大眾創業)’, ‘만인혁신(萬眾創新)’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함으로써 시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는 일련의 정책이 내놓았고 특히 인터넷 창업, 대학생 창업,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가 창업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다. 예컨대 후베이 성의 정책^⑤에 의하면 개체공상호로 등록 하지 않은 인터넷 상가는 자유노동자로서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자유노동자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되고 안정적인 경영 및 높은 신뢰도를 가진 인터넷 상가는 대출 및 이자 정책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졸업한 지 5년 이내의 대학생은 창업 보육 센터에서 사업하는 경우 임대료, 수도와 전기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발달과 다양한 정책적 지지 덕에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에는 양적인 증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있다.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역시 시기에 따라 변하고 있다. <표1>는 중국 가구소득조사(CHIP)^⑥의 자료를 이용해 1988년, 1995년, 2002년, 그리고 2013년 직업별 연 평균소득에 대한 비교결과이다.

^⑤ 2015년 ‘새로운 상황 하에서 취업 및 창업을 촉진시키는 데에 대한 의견 (關於做好新形勢下就業創業工作的實施意見)’

^⑥ 각 조사에서 사용한 직업의 명칭과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다. 2013년의 직업종류는 개인의 직업코드와 고용형태, 단위유형, 직급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농업은 제외된다.

<표1. 1988,1995,2002,2013년 직업별 연평균소득 비교>

1988년				
	표본수	비율 (%)	연평균소득 (위안)	표준편차
사기업/개인기업 업주 및 관리자	17	0.10	95.82	11.46
사기업 / 개인기업 업주	95	0.54	84.18	3.57
전문기술자	2818	16.05	96.98	0.86
정부기관 책임자	838	4.77	112.39	1.41
공장 관리자	316	1.80	111.92	2.03
사무원	4180	23.81	87.54	0.63
육체노동자	9293	52.93	74.09	0.37
	17540	100		
1995년				
사기업/개인기업 업주 및 관리자	21	0.17	5991.67	703.00
사기업 또는 개인기업 업주	75	0.61	5558.47	462.76
전문기술자	2684	21.72	6522.76	65.42
단위 책임자	452	3.66	7440.87	219.43
중층 관리직	960	7.77	7049.94	116.55
사무원	2470	19.99	5547.87	66.81
육체노동자	5697	46.10	4739.97	41.31
	12338	100		
2002년				
사기업업주	45	0.45	18233.52	2943.19
자영업자	433	4.37	10434.63	580.69
전문기술자	2149	21.71	14859.21	202.65
체제내 단위 책임자	259	2.62	16867.77	650.98
단위/기업 관리직	806	8.14	16900.97	369.13
사무원	2064	20.85	12665.48	181.96
육체노동자	2889	29.18	10156.92	136.26
영업 사원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	1255	12.68	8199.48	177.24
	9900	100		
2013년				
사기업업주	99	1.08	90460.38	9138.10
자영업자/개체공상호	1029	11.27	45253.61	2669.03
전문기술자	1672	18.31	47796.79	921.23
체제내 단위 책임자	282	3.09	47131.57	1455.18
단위/기업 관리직	637	6.98	59144.86	1458.96
사무원	493	5.40	43044.65	1150.33
육체노동자	1709	18.72	33291.26	486.73
영업 사원 / 서비스업 종사자	3209	35.15	29926.97	372.38
	9130	100		

전체적으로 육체노동자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종사자가 2002년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비임금노동부문의 비중은 통계자료에서 보인 추세와 일치하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0년대 중 후반기에 국영기업개혁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下崗)’ 노동자와 서비스업종사자가 대규모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상당한 노동인구가 비임금노동부문에 의해 흡수되었기 때문이다(Lu, 2002).

1980년대부터 중국 직업에 따른 빈부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비임금노동자가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연평균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 내부의 연 소득 격차가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높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음도 중요한 변화로 관찰된다.

제 2 절 중국의 비임금노동의 증가와 다양성

1.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고용유형(type of employment)에 따라 직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Koo(1976)는 타인에게 고용되며 고정된 월급이나 임금을 받는 노동을 관료주의적 부문(bureaucratic sector)이라고 칭하며 행상, 소매상인, 자영업자 또는 다른 근로자의 고용주, 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비임금노동은 창업적 부문(entrepreneurial sector)으로 전자와 구분하였다. Hart(1973)는 가정 서비스 및 소액 거래에서 임대업 활동 및 상품 투기에 이르기까지 조직화된 노동력, 즉 공식 고용 구조 이외의 경제활동을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 논문에서 비임금노동(non-wage worker)은 고용유형에 따라 조직화된 임금노동과 반대된 개념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지 않은 여러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비임금노동에 연관된 다양한 개념을 비교하면서 중국적인 색깔을 띠는 비임금노동의 개념을 구체화할 것이다.

연구사적으로 비임금노동자는 자본주의 국가와 탈-사회주의 국가의 썩디부르주아(petty bourgeoisie),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자영업자(self-employed worker), 개인자영업자(own-account worker), 소고용주(small employer)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중국에서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또는 개체호(個體戶)와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 private entrepreneurs) 라고 불리는 비임금노동은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이 다양한 개념어들은 기존의 고용시스템에 포괄되지 않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 개념의 구체적인 의미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아래 <표 2>은 비임금노동의 다양한 개념 정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표2. 비임금노동에 관한 개념 비교>

개념 항목	정의	납세함	소규모	사업장	직원 고용
쁘띠 부르주아 petty bourgeoisie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요 계급의 이해가 부각되고 흐려지는 '과도기적 계급(transitional class)'. 몸집이 작은 부르주아 계급은 이 두 계급 사이에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이익의 측면에서도 위치한다. 그것은 소규모 생산적 재산이 가사 노동과 혼합되고 소유되는 사회적 조직의 특유한 형태를 나타낸다. 작은 가게 주인 (small shopkeepers)과 자영업 장인 (self-employed artisans)이 그의 원형이다. (Marx, 1850; Marshall, 1998)	-	-	-	-
비공식부문 informal sector	자본주의적 임금노동 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제 영역이다. (Hart, 1973)	X	O	-	-
개인자영업자 own-account workers	자기가 일하거나 한 명 이상의 파트너와 일하는 자로서 자영업 형태의 하나로 정의된 직종이며,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지 않는다(ILO, 1993).	-	O	X	X
자영업자 self-employed	적어도 자신의 일부 노동을 통해 소득을 받지만 임금을 위해 고정적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는다 (Steinmetz and Wright, 1989).	-	-	-	-
개체공상호 individual business	중국에서 개인 자산이나 가족 재산을 운영 자본으로 사용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고 비농업 사업 운영하는 개별 사업자(중국공상조례).	O	O	-	0~7명
사영기업주 private entrepreneur	생산 재료가 개인 소유이며 8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영리 목적의 경제 단체의 책임자(중국공상조례).	O	X	O	8명 이상

개체공상호와 사영기업주는 중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나타난 개념으로, 비임금노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중국공상조례에 따르면, 개체공상호에는 1)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되고 ‘영업 허가’를 받은 개체공상호, 2)국무원과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민간 비기업 등록증’을 받은 민간 비기업, 그리고 3)기업등록증을 받지 못해도 실제로 자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 사영기업은 개체공상호의 기반 위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개체공상호와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사영기업과 개체공상호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직원고용에 있어 개체공상호는 최대 8인만 고용할 수 있는 반면에 사영기업주는 8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형식에 있어 개체공상호는 비교적 간단한 경영조직으로서 ‘개인경영’과 ‘가구경영’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⑦ 반면에 사영기업은 개인 소유(私營獨資), 개인 합작(私營合夥), 개인 유한 책임(私營有限責任) 회사의 세 형태로 개체공상호가 감당할 수 없는 조직구조^⑧를 갖고 있다. 셋째, 경영규모에 있어 최저자본이나 회계에 대한 요구가 없고 소규모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개체공상호와 달리 사영기업은 일정 경영규모를 갖는 경제조직으로서 회사유형에 따라 3만~10만 위안의 등록 자본이 필요하며 동시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개체공상호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영업의 규모 제한 아래 민간 상업활동에 대한 필요로 나타난 특수한 비임금노동의 형태지만 시장의 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장되기도 했다. 계층연구에서 중국의 사회학자에 의하면 현대 중국 계층은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⑨ 개인 자본이 적고 생산, 유통, 서비스업 및 기타 금융활동 또는 금융채권 시장에 투

^⑦민법통칙(民法通則) 제26조, 29조

^⑧채무에 있어 전자인 경우 개인 재산으로 부담하며 후자인 경우 가족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⑨1999년 중국사회과학원 ‘당대 중국 사회구조 변천 연구팀’이 성립된 이후 일련의 보고서 및 저작이 발표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중국의 계층은 크게 국가 및 사회관리자 계층, 관리직 계층, 사영기업주 계층, 전문기술자 계층, 사무원 계층, 개체공상호 계층, 상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계층, 산업노동자 계층, 그리고 농업노동자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입되는 사람은 개체공상호계층에 속한다. 예컨대 중소기업 업주 또는 소고용주 (소수의 인력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지만 노동 및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자영업자(경영에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지만 타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소액 주주 등은 이 계층에 포함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듯이 최근 들어 많은 중소기업은 개체공상호로 등록되고 있지만 투자금액, 경영방식, 업주의 소득 수준에 있어 일반 개체공상호와 매우 다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2산업에서 8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제3산업에서 4인 이상을 고용하며 육체노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업주를 사영기업주로 취급하기도 한다(Lu, 2002; Li, 2005).

그러나 위와 같은 분류는 비임금노동자 내부의 다양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비임금노동의 개념은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변화되며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개념으로는 중국의 비임금노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또한 사영기업주와 개체공상호라는 이원적인 분류는, 오늘날 세분화된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틀이 될 수 없다. 예컨대 아래 미디어에 의해 보도된 예시에서 모두 개체공상호로 불리지만, 구체적인 직업내용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주결산은 창사 시 상무국 국제 시계 및 안경 회사의 기술자였다. 1983 년 ……회사 안경업무부서를 '청부(承包)^⑩ 하겠다는 제안이 통과하지 못했기에 국영기업을 떠나 사업을 시작했다. 실업증명서 또는 사직서 없이는 사업등록증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는 사직이 승인되지 않았기에 지인의 도움으로 타인의 사업등록증을 빌려 20 평인 가게에서 안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평균 월급은 30 위안에 불과했던 시절에 그의 평균 월 수익은 약 3000 위안이었다. 1993 년 ……상점을 회사로 확장시켰고 …… 2018년 후난성에서 10 개 이상의 지점으로 발전시켰다.”

◆출처: 인민망(人民網), 후난일보(湖南日報) 2018.07.24. ‘個私經濟, 勳立潮頭之上’ .

^⑩ 경작권을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임대하는 제도

“후베이에서 온 Nie씨는 충칭에서 케리어를 도매했다. 다른 자영업자와 달리, 그는 자기 집에서 도매 사업을 했다. ‘2001년 도매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들어 벌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습니다.’ …… ‘현지에서 집을 샀습니다. 그러나 대형 쇼핑몰의 임대료는 너무 높고 도매 시장에서는 여러 세력의 견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사업하는 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언제든지 산업 및 상업 부서와 세무국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출처: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週刊) 2006.10.18. ‘創業環境惡化: 中國個體戶7年半減少7650萬戶’

“농민 출신인 39세 왕 씨는 ‘키가 작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2002년에 겨우 청두에서 육체노동 일자리를 찾았지만 200위안의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트 박스를 판매하다가 현재 핸드폰을 수리하는 장사를 하고 있다. …… ‘1년에 몇 천 위안 밖에 못 벌었습니다. …… 육교 아래 30평에 불과한 가게에서 부모님 및 초등학교생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월세는 1000 위안 이상입니다.’ ”

◆출처: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2012.04.25 個體戶憂思.

오늘날 중국에서 비임금노동부문에 개체공상호와 사영업주가 대표적인 비임금노동자로 간주되어 있으나 비임금노동자, 특히 개체공상호의 다양한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직화되지 못한 행상, 자유직업,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상가 등 예외적인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영기업주에만 초점을 두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비임금노동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구체적인 노동분업과 소득수준을 고려해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체자영업자로 비임금노동의 형태를 세분화하여 사회경제적 수준과 집단 간 진입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의 차이점을 규명할 것이다.

2. 비임금노동에 관한 연구흐름

비임금노동에 대한 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전통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에서 단순상품생산은 봉건사회의 주요한 생산형태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쇠퇴하는 생산형태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확장은 자본 축적의 단위를 증대시키고, 자본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소고용주의 비율이 감소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한 비임금노동자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뿌띠부르주아는, 단순상품생산의 파괴와 중앙 집권화의 이중 압력 하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Steinmetz & Wright, 1989).

그러나 이 예측과 달리 1950년-1975년 사이에 노동인구의 대규모적인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일자리, 그리고 낙후된 복지체제로 인해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대폭 증가하였다. ‘비공식부문’이라는 용어는 Keith Hart(1973)가 가나 도시에서의 고용 현상의 특징을 개념화하면서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가나 도시 지역에서 급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활동에 주목하면서, 자본주의적 고용관계에 편입되지 않은 경제 영역을 비공식부문이라고 칭하였다. 이 개념은 곧바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수용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와 제3세계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본주의적인 생산과 고용관계의 확장 속도가 잉여노동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법제화 또는 공식화되지 못한 기존 자본주의의 고용관계로부터 방치된 인구가 발생한다.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잉여인구는 느슨하게 조직된 경제부문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공식부문은 ‘저소득’, ‘소규모 및 가정 중심’, ‘자유로운 진입’, ‘안정적 고용관계의 부재’ 등의 특징을 내포하는, 저소득층을 형성한 부문으로서 논의되기도 했다(Todaro, 1969; Fields, 1975; Banerjee, 1983; ILO,

1984).

비임금노동은 자본주의국가뿐만 아니라 시장전환을 거친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에 의한 완전고용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비임금노동은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라고 할 수 있다. 시장전환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과거 사회주의 시기에 없었던 비임금노동 부문에 대해 대안적 상승기회였다고 보는 관점을 공유하지만, 누가 실질적으로 이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는 주로 당 관료의 정치적·경제적 우세가 새로운 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맞물린다(Szelenyi and Kostello 1996). 대표적으로 시장전환이론(market transition Theory)과 권력전환이론(power conversion theory)의 관점이 있다. 시장전환이론에 의하면, 시장전환 이후 재분배(redistribution)에 비해서 직접생산자(direct producer)는 더 유리한 위치에 처한다. 때문에 재분배 체계에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불평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인적 자본에 대한 수익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Nee, 1989). 반면에 권력전환이론에 따르면, 당 관료는 ‘재분배에 대한 권력 - 사회적 관계라는 자원 - 개인 재산’의 패턴으로 권력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치 자체가 시장거래에서 지속적인 우세를 제공해준다(Rona-Tas, 1994; Staniszki1991). 특히 공산당 정부가 붕괴된 이후 동구권국가와 러시아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치적 엘리트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세계 은행의 권고에 따라, 시장 자본주의의 공식과 규제 체계를 정책화하기 위해 신속한 일련의 하향식 개혁 조치를 모색했다(Nee & Oppen, 2012). Szelenyi(2013)은 이와 같은 정치적 엘리트의 적극적인 역할과 일련의 하향적 개혁에 의한 기업의 등장과정을 ‘하향식 자본주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3.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의 부상

중국의 비임금노동은 자본주의국가 및 탈-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난 비임금노동의 양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그 확산 과정에 있어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개체공상호와 사기업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에도 관료기구가 통제하는 국영기업들의 우세가 유지되었고 사기업에는 다양한 차별과 규제가 가해졌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이 활발하게 나타나 확산하였다는 것은 국가지도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Sun은 중국과 구소련 및 동유럽의 시장 변화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우선, 중국 시장의 변혁의 특수성은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연속성에서 드러나는데, 기존의 정치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때문에 많은 중요한 개혁조치와 변화과정은 융통성 있게 실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서 새로운 제도적 요소가 종종 나타나고 비공식적으로 퍼졌다. 또한, 비공식 기관의 성장과 발전은 종종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국 시장의 변화를 연구할 때 체제의 작동 과정 상의 비공식적인 요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Sun은 강조하였다(Sun, 2002A; 2002B).

Nee 와 Opper는 중국 사영기업의 출현과 확산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로 설명하며, 기업의 사회적 관계들에 의존한 비공식규범(informal norms)의 역할을 강조했다. 관료적인 허레허식(red tape)의 영향과 재산권 보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비공식규범에 의존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정보를 획득했다. 또한 경쟁적 경제에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했다(Nee & Opper, 2012). Xie(2018) 또한 중국 후난성의 민간 기업에 대한 연구에서 다시 비공식 제도(非正式制度)의 역할을 강조했다. 민간 경제가 발전된 초기에 사업자들은 독점적 사유 재산권이 엄격하게 금지당했고 시장 거래와 경쟁이 극도로 부족한 경제 체제에 직면했다.

동시에 사업자는 혈연(血緣), 친연(親緣) 및 지연(地緣)을 강조하고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이 모순되는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 사업자가 처한 주된 문제는 잠재적인 기업가로서의 정체성과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기관의 부재였는데, Xie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비공식 제도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논의에 의하면 비공식규범 혹은 비공식제도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에 배태되고 관계에 의해 발전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사업적 성공과 비임금노동부문, 특히 기업의 번창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중국인의 ‘판시’를 통해서 중국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관계의 역할수행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제 3 절 판시와 비임금노동의 관계

1. 사회연결망 시각으로 보는 판시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인간의 행위는, 신고전경제학자들이 생각하듯이 합리적이고 원자화된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과 권력에 대한 순종 등도 행위의 목적에 포함된다. 개인의 행위가 한 개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에 배태(embedded)된 것이며, 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연결망은 더 넓은 연결망, 제도,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추세와 상호작용한 것이다(Granovetter, 1985; 1999). 때문에 신뢰, 규범, 권력, 정체성 등의 개념은 사회연결망을 통해서야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연결망 이론에 의하면 구조는 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자원, 정보와 영향력이 서로 다른 사회공간(social spaces, niches)간 유동 또는 폐쇄가 일어나는 역동적 과정이다(Harrison C. White, 1992; Popielarz & McPherson,

1995). 각기 다른 제도적·역사적 환경하에서 사회공간이 어떻게 출현하고 변화하는지, 자원이 어떻게 유동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에서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은 사회연결망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Luo & Li, 2012).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연결망 연구는 개인의 실질적인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이 관계가 시스템적 차원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개인의 행위와 거시적 현상 사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사회연결망의 시각으로 중국인의 행위, 판시, 그리고 사회연결망 구조의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사회연결망 연구는 사회적 행동 및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차등적 질서구조(差序格局)"라는 Fei Xiaotong(1948)의 개념은 중국인의 행동 패턴과 개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주요 두 가지 함의를 안고 있다. 첫째, 중국인은 친밀도의 차이와 신뢰의 정도에 따라 먼 쪽부터 가까운 쪽까지 자기를 둘러싼 지인 그룹(圈子)을 구성한다. 둘째, 서로 다른 자기들끼리의 단체 간의 관계에는 서로 다른 상호작용 규칙을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Yang(1993)은 중국인의 대인관계를 가족, 지인, 낯선 사람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원칙을 ‘책임(責任)’, ‘인정(人情)’, ‘이해관계(利害)’ 라고 정리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한, 가족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연결망이 사회적 관계의 핵심이라면, 낯선 관계에서는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관계와 기대에 부합하는 교환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인관계의 경우 인정을 중요시하며 정서적 행동의 명목 하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교환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연결망을 확장시킨다. 인정은 중국사회의 판시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이자 중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Luo, 2012). 그렇기 때문에 지인관계가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거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연결망은 중국뿐만 아닌 다른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한국 연고주의는 주로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유지한다.

그러나 연고주의는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패쇄적인 성격을 띠지만, 중국인의 판시는 인정의 교환이 증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 판시를 구축하고 인맥을 쌓는 것, 그리고 개방적인 연결망을 관리하는 것을 행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Luo & Li, 2012) 따라서 판시의 구조는 비교적 역동적인 것이며 실질적인 인정에 대한 교환에 의해 형성·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동적인 판시 연결망에 대한 구축과 이용은 중국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약한 법치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비신뢰성(unreliability)은 새로운 사업자, 그리고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Walder, 1986). 이런 이유로 판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즉 대부분의 판시, 그리고 판시에 의존하는 소집단 현상을 부정부패로 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상법이나 자본주의적 체제가 성숙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De George, 1993; Yang, 1994). 그러나 Luo는 조직 내부의 청부(承包), 부속(掛靠)^①, 조직 외부의 파견회사(外包), 상인 집단을 비롯한 다양한 기제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적 네트워크 현상은, 신뢰 및 협상에 기반을 둔 자기조직(self-organization)의 자발적인 작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Luo, 2007; 2012). 이는 Powell(1990)이 주장한 관료제적 위계(hierarchy)도, 독립적 조직 간의 시장(market) 거래도 아닌, 제3의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는 네트워크 구조와 같은 맥락에 있다. Powell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거래는 정보의 전파, 가격 메커니즘, 그리고 계약에 의해 조직화되고, 위계적 구조는 관료적 구조, 명령 체계 및 회사규정에 따라 조직화되는 반면, 네트워크 구조의 메커니즘은 주로 신뢰 관계 및 협상에 의해 작동한다. Luo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관계망은 중국대륙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그리고 다른 중국인 집중지역에서도 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시의 기본적인 구조

^①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인 조직이 명의상으로 조직 등의 관계에서 다른 조직에 예속되는 형태. 예컨대 개혁초기에 사영기업주가 사업을 국영기업이나 집체기업의 하속기업으로 등록함으로써 집체나 국가 기관의 보호 내지 혜택을 향유한다.

는 제도적 환경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영기업주의 유연성 및 빠른 반응속도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Luo, 2012).

2. 개혁기의 비임금노동과 판시의 역할

사회연결망과 노동시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사회적 관계가 다양한 경제체제 하에서 직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 집중되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인데(Devine & Kiefer, 1991) 사회연결망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의 결함을 일정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Granovetter(1973)의 연구에서 약한 연대를 통해 얻은 정보가 중첩되는 정도는, 강한 연대에서의 중첩 정도보다 낮기 때문에 약한 연대를 이용한 구직자에게 상향적 직업이동의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재분배경제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는 주로 국가가 노동력을 통제하고 계획대로 할당한 것에 기인한다(Bian, 2001). Bian은 중국천진에 대한 연구에서 판시가 주로 인정(人情)교환을 통해 영향을 미침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인정의 호혜성으로 상대방에게 보답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인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화는 공식적 조직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신뢰가 매우 중요해진다. 따라서 인정을 기반한 연대가 강할수록 구직자는 노동력을 배분하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도움을 받을 가능성 높아진다(Bian, 1994; 1997).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재분배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따라서 비임금노동부문의 출현과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변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판시는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전환, 특히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는 주로 두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즉, 불완전한 법 체계와 상당한 복잡한 규제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업등록증

이나 운송허가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측면(Oi, 1993)과,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 선호되는 체제에서 시행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 있어 판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Yang, 1994; Yan, 1996; Kipnis, 1997; Yueh, 2008).

시장전환 이후의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비임금노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Gerber, 2002; Hanley, 2000; Szelényi, 1988; Róna-Tas, 1994). 그러나 자료의 결여로 인해 개혁기 중국의 비임금노동에 대한 연구,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히 연구의 범위가 여러 도시 혹은 지역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근의 변화를 포섭하지 못한다. 연구대상에 있어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체제 내 권력을 가진 자(전직 간부)가 사업가로의 전환이나(Song, 1998; Wu, 2006; Yueh, 2008), 도-농 이주민(농민공, 农民工)이 비임금노동부문의로의 전환에 주목해 왔다(Wang et al., 1997; Zhang & Zhao, 2012; Ye & Wang, 2013).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는 역동적인 직업전환과정에서 비임금노동자로서의 이질적인 전환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판시가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역시 제한적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직업전환의 패턴을 구분해 비임금노동의 성격과 구조를 살펴본다. 특히 판시의 효과를 중심으로써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제 4 절 연구가설

제도의 변화는 한 부문(예컨대 비임금노동부문)의 팽창과 쇠퇴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부문간의 직업이동에 대한 연구는 특히 중요하다. 또한 부문 내부에서의 위치는 계층화 메커니즘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Zhou & Tuma & Moen, 1997) 체제전환과정에서 누가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했는지, 새롭게 등장한 부문에서 개인이 어떤 위치에 차지했는지를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비임금노동부문은 국영기업 실직자, 이농민, 서비스업 종사자 등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노동인구를 대규모적으로 흡수하였다. 이들은 인적 자본과 정치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환경에서 비임금노동 부문에 참여해도 잃을 게 없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조직화된 고용관계에 편입되지 못하지만 느슨하게 조직된 경제영역에서 소규모적인 자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전환이론과 권력전환 이론에 의하면 고학력자, 전문기술자와 당 관료는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커다란 혜택에 끌려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1992년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가 합법적 지위를 취득한 이후 수많은 고학력자, 전문기술자와 당 관료는 취직기회를 포기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비임금노동자에 비해서 보다 높은 소득을 가질 수 있다(Wu & Xie, 2003; 2005).

한편, 기존 논의에 의하면 중국에서 비임금노동의 확산과 이질화에는 제도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속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 개인이 맺고 있는 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불확실한 요소와 복잡한 규제에 가득 찬 환경에서 판시는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보장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형태에 의해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한다. 그리고 노동분업(고용주 여부 및 육체노동 여부)과 소득수준에 의해 비임금노동자를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로 구분하

였다.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인적 자본, 당원신분, 그리고 판시가 비임금 노동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은 비임금노동으로의 진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비임금노동부문의 상승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인적 자본이 많을수록, 당원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혹은 고용주가 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가설2: 판시는 비임금노동부문의 상승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판시를 적극적으로 구축·유지할수록, 사업 중개자가 있을수록, 그리고 사업 중개자와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혹은 고용주가 될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제 3 장 연구자료와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6년 중국 중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를 사용한다. ‘중국 노동력 동태 조사’ 는 노동력에 대한 최초의 전국 추적 연구로, 중국 29 개 성과 도시에서 만15세 이상의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표본은 개인, 가정,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로 나뉘며 2016년 개인 단위 표집구성원 총 11,023 개의 표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근무경험이 없는 사람과 농민을 제외한 노동자 표본은 4,305 이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비임금노동은 999명이다.

제 2 절 변수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전체 비임금노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이를 다시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와 “육체자영업자”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계층연구에서 비임금노동자는 생산관계, 노동분업, 그리고 경제적 자본 소유 정도 등에 의해 세부화될 수 있다. 우선 비임금노동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나눌 수 있다. 2001년 전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체공상호중에서 고용주는 22%를 차지하였으며 자영업자는 7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Lu, 2002; Li, 2005) 본 연구에서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구분하기 위해 “귀하의 직업 형태를 직원, 고용주, 자영업자 및 농민으로 나눌 경우 아래 정의에 따라 어떤 유형에 해당됩니까?” 문항을 사용한다. 조사에서 고용주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며 임금 지급을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고용주는 자신이고 타인을 고용하지 않으며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다음으로 노동분업에 따라 같은 자영업자임에도 비육체노동과 육체노동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논문에서 비육체자영업자는 주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업주, 그리고 문화, 교육, 예술 등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원을 고용하지 않되 일정한 경제적 자본이나 문화적 자본을 가지기 때문에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전기공 및 목공 등 육체자영업자와 구별된다. 자영업자의 내부 이질성을 드러내기 위해 “귀하의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문항을 사용해 변수 ‘비육체자영업자’와 ‘육체자영업자’를 재조작한다.

<표3. 2016년 집단별 비임금노동자의 연 평균소득>

비임금노동	연 평균소득 (단위: 위안)	중앙치(단위: 위안)
고용주(N=174)	133,554	80,000
비육체 자영업자(N=490)	51,186	30,000
육체 자영업자 (N=335)	35,604	26,400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의 구체적인 노동분업에 질적인 차이가 보일 뿐만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고용주집단의 연 평균소득은 비육체자영업자에 비해 2.6배 많으며 육체노동자에 비해 3.8배 많다. 그러므로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라는 분류는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 내부의 이질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적 변수인 판시에 관한 변수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같이 식사하는 것은 낯선 관계에서 지인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고자 하는 의지표현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이다(Luo, 2007). 따라서 판시에 대한 구축·유지를 측정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타인에게 식사초대를 받으십니까?”의 문항을 사용한다.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받는다” 인 경우 “1”, 반대인 경우 “0” 을 부여해 변수를 재조작한다. ‘식사초대’ 라는 행동은 실제로 인정에 대한 교환뿐만 아니라 상황과 정보에 대한 파악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귀하에게 비즈니스를 소개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사용한다.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다”, “아주 신뢰한다” 인 경우 각각 “1” 을 부여하고 반대인 경우 “0” 을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이 변수들은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스적 판시의 유무와 판시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인적 자본에 있어 교육수준은 “중졸 미만”,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경우 각각 “1”를 부여하고, 반대인 경우 각각 “0”을 부여하고 가변수로 재조작한다.

중국에서 공산당당원은 관료주의적인 체제 내에서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당원이 아닌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당원인 경우 “1”, 아닌 경우 “0”를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에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기 위해 최초 직장과 현직이 시작한 시기를 개혁 단계에 따라 “1978년 이전”, “1979-1992년”, “1993-2002년”, “2003-2012년”, “2013-2016년”으로 나누어 변수를 재조작한다. 구체적인 분석에서 개혁 초 비임금노동의 사례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2002년 이전”을 대비조로 설정한다.

통제변수는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농 지역, 호적상태로 구성된다. 성별과 혼인상태는 남성, 유배우자인 경우 각각 “1”를 부여하며 반대인 경우 “0”를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연령집단은 “3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 구분해 재조작한다. 도시지역, 도시호적인 경우 각각 “1”의 값을 부여하며 농촌지역, 농촌호적인 경우 “0”의 값을 부여해 가변수로 구성한다.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4>2016년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의 기초통계표

		임금노동자 (N=3306)		비임금 노동자 (N=999)		고용주 (N=174)		비육체 자영업자 (N=490)		육체 자영업자 (N=335)	
		N	%	N	%	N	%	N	%	N	%
남성		1791	54.2	659	66.0	125	71.8	268	54.7	266	79.4
배우자 있음		2519	76.2	858	86.0	145	83.3	430	87.8	283	84.5
연령 집단	15~29세	956	28.9	156	15.6	30	17.2	95	19.4	31	9.3
	30대	817	24.7	261	26.2	56	32.2	130	26.5	75	22.4
	40대	880	26.6	325	32.6	61	35.1	153	31.2	111	33.1
	50대	501	15.2	190	19.0	19	10.9	84	17.1	87	26.0
	60세 이상	139	4.2	65	6.5	7	4.0	27	5.5	31	9.3
도시지역 거주		1910	57.8	476	47.7	113	64.9	254	51.8	109	32.5
도시호적 있음		1443	43.6	250	25.1	82	47.1	126	25.7	42	12.5
최초직장 시작시기	~1978	153	4.6	65	6.5	5	2.9	24	4.9	36	10.7
	1979-1992	632	19.1	225	22.5	33	19.0	94	19.2	98	29.3
	1993-2002	633	19.1	251	25.2	46	26.4	131	26.7	74	22.1
	2003-2016	1786	54.0	437	43.8	88	50.6	230	46.9	129	35.5
현재 시작시기	~1978	33	1.0	20	2.0	1	0.6	6	1.2	13	3.9
	1979-1992	233	7.0	81	8.1	11	6.3	24	4.9	46	13.7
	1993-2002	388	11.7	188	18.8	29	16.7	94	19.2	65	19.4
	2003-2012	1070	32.4	372	37.2	85	48.9	176	35.9	111	33.1
	2013-2016	1532	46.3	333	33.3	48	27.6	186	38.0	99	29.6
교육 수준	초졸미만	472	14.3	238	23.8	17	9.8	104	21.2	117	34.9
	중졸	1078	32.6	448	44.9	67	38.5	221	45.1	160	47.8
	고졸	761	23.0	197	19.7	42	24.1	105	21.4	50	14.9
	대졸이상	995	30.1	114	11.4	47	27.0	59	12.0	8	2.4
자격증		959	29.0	164	16.4	48	27.6	75	15.3	41	12.2
외국어		831	25.1	134	13.4	47	27.0	71	14.5	16	4.8
당원		422	12.8	51	5.1	16	9.2	21	4.3	14	4.2
자주 식사초대		427	12.9	12.9	16.2	57	32.8	73	14.9	32	9.6
사업 소개자 있음		—	—	449	45.0	118	67.8	225	45.9	96	28.7
소개자에 대한 신뢰		—	—	157	15.7	51	29.3	77	15.7	27	8.1

제 3 절 분석방법

우선 어떤 요인에 의해 임금노동에 비해 비임금노동이 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 전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직업 궤적을 통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직경험 유무에 따라 순수한 비임금노동자, 그리고 임금노동에서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를 구분하였다. 각 요인들, 특히 판시가 비임금노동자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비임금노동자를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육체자영업자 집단별로 나눈 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과 직업궤적

1.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유형

오늘날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표5>와 같이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세부 유형이 정리된다.

2016년 중국의 비임금노동부문에서 고용주, 비육체자영업자, 그리고 육체자영업자는 각각 17.4%, 49%, 33.5%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가 가장 큰 비율(약 36.6%)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건설 노동자, 공장 노동자, 전기공 및 목공은 1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회사에 속하지 않은 개인 기사나 최근에 들어 유행한 인터넷 교통 플랫폼에 등록된 개인 기사도 상당한 비율(7.5%)을 차지하였다. 그 외

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개인 사업자, 인터넷 소설 작가, 인터넷 강사 등 새로운 비임금노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표5. 2016년 중국 비임금노동자의 세부 유형>

비임금노동		N	비율
고용주 (N=174)	도소매 및 요식업 고용주	70	7.0%
	건축업, 부동산업 고용주	25	2.5%
	제조업 고용주	24	2.4%
	서비스업 고용주	17	1.7%
	기타 고용주	38	3.8%
비육체자영업자 (N=490)	도소매 및 요식업 업주	296	29.6%
	문화, 예술, 교육 등 영역의 전문가	52	5.2%
	건축업, 제조업 업주	51	5.1%
	서비스업 업주	22	2.2%
육체자영업자 (N=335)	기타 비육체자영업자	69	6.9%
	건축업, 제조업 육체자영업자	130	13.0%
	교통운송업(기사)	75	7.5%
	임시직업	73	7.3%
	재활용업	12	1.2%
기타 육체자영업자	45	4.5%	
합계		999	100%

2. 비임금노동자의 직업계적

중국의 비임금노동자는 어디서 왔는가? 최초 직장에서 현직으로 전환하는 패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16년 현직이 비임금노동자인 사람은 999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3.8%를 차지하였고 임금노동자와 농업노동자는 각각 45.7%와 40.5%를 차지하였다. 전환 패턴별로 보면 전체 노동시장에서 이직경험이 없는 노동자, 즉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016년까지 최초 직장을 유지한 노동자가 4,523명이다. 이직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는 445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999명 중 44.5%를 차지하였으며 임금노동자에서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한 사람은 403명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 중 40.3%를 차

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임금노동과 농업부문에 비해서 비임금노동부문으로 전환한 비율은 상당히 높았으며 또한 주로 임금노동에서 전환한 것이었다.

최초 직장을 기준으로 임금노동자인 노동자 중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한 비율이 19.87%에 불과하였지만 임금노동자의 사례수(2,159명)를 고려하면 이는 비임금노동의 대규모적인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6>노동자 최초 직장-현직 전환패턴

패턴		2016년 현직				
		비임금노동	임금노동	농업	합계	
이직 경험없음	사례수	445	1572	2506	4523	
	현직 중 비율	44.50%	47.50%	85.60%	62.55%	
	첫직 중 비율	9.84%	34.76%	55.41%	100%	
최초 직업	임금노동자→	사례수	403	1502	254	2159
		현직 중 비율	40.30%	45.40%	8.70%	29.86%
		첫직 중 비율	18.67%	69.57%	11.76%	100%
	농업 노동민→	사례수	92	213	158	463
		현직 중 비율	9.20%	6.40%	5.40%	6.40%
		첫직 중 비율	19.87%	46.00%	34.13%	100%
	비임금노동→	사례수	59	19	8	86
		현직 중 비율	5.90%	0.60%	0.30%	1.19%
		첫직 중 비율	68.60%	22.09%	9.30%	100%
합계	사례수	999	3306	2926	7231	
	현직 중 비율	100%	100%	100%	100%	
	첫직 중 비율	13.82%	45.72%	40.46%	10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노동자가 비임금노동이 되었는가? <표 7>와 같이 비임금노동자 중에서 육체노동자(58.56%)와 서비스업 종사자(29.78%)로부터 전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오늘날 중국의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여전히 임금노동부문으로 진입하였으나 그 중 상당한 일부, 특히 육체적 또는 반(半)육체적 노동을 종사하던 노동인구가 비임금노동부문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표7>임금노동자 - 비임금노동자 전환패턴

최초 직업: 임금노동자		2016년 현직			
		비임금노동	임금노동	농업 노동자	합계
단위책임자→	사례수	3	11	2	16
	현직 중 비율	0.74%	0.73%	0.79%	0.74%
	첫직 중 비율	18.75%	68.75%	12.50%	100%
전문기술자→	사례수	26	142	18	186
	현직 중 비율	6.45%	9.45%	7.09%	8.62%
	첫직 중 비율	13.98%	76.34%	9.68%	100%
사무직원 →	사례수	18	53	9	80
	현직 중 비율	4.47%	3.53%	3.54%	3.71%
	첫직 중 비율	22.50%	66.25%	11.25%	100%
서비스업 →	사례수	120	527	68	715
	현직 중 비율	29.78%	35.09%	26.77%	33.12%
	첫직 중 비율	16.78%	73.71%	9.51%	100%
육체노동자→	사례수	236	769	157	1162
	현직 중 비율	58.56%	51.20%	61.81%	53.82%
	첫직 중 비율	20.31%	66.18%	13.51%	100%
합계	사례수	403	1502	254	2159
	현직 중 비율	100%	100%	100%	100%
	첫직 중 비율	18.67%	69.57%	11.76%	100%

제 2 절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결과

1.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2016년 중국의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전체 비임금노동자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6> 2016년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에 속할 가능성 분석

N=		Coef.
남성		0.447 ***
배우자 있음		0.250 *
연령집단	(base=0. 15~29세)	
	30대	0.509 ***
	40대	0.548 ***
	50대	0.514 **
	60 세이상	0.715 **
도시 지역		0.155
도시 호적		-0.662 ***
최초직장 시작시기	(base=0. 1978년 이전)	
	1979-1992년	0.167
	1993-2002년	0.154
	2003-2012년	0.257
	2013-2016년	0.094
현재직장 시작시기	(base=0. 1978년 이전)	
	1979-1992년	-0.258
	1993-2002년	0.145
	2003-2012년	-0.126
	2013-2016년	-0.503
교육 수준	(base=0. 중졸미만)	
	중졸	-0.055
	고졸	-0.369 **
	대졸이상	-0.835 ***
자격증 있음		-0.331 **
외국어 가능		0.067
당원		-0.662 ***
자주 식사초대하기 / 받기		0.577 ***
N		4154
Pseudo R ²		0.0917

*** P<0.001 **P<0.01 *P<0.05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분석결과,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고, 29세보다 나이가 많은 연령집단일수록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도시호적을 가지고 있고, 고졸 및 대졸 이상이고, 자격증이 있고, 당원인 경우 임금노동부문에 속하기보다 비임금노동부문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인적 자본과 당원 신분을 갖춘 사람이 비임금노동부문에 비해 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주 식사초대를 하거나 받는 경우 비임금노동자가 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에 비해 비임금노동자의 전체적인 성격을 반영하며 비임금노동부문에서 판시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다. 본 연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업전환 궤적에 따라 패턴별로 각 요인, 특히 판시와 비임금노동으로의 이질적인 전환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체자영업자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는 고용주, 그리고 비육체자영업자 집단에 속할 개연성을 나타낸다. 패턴별 비임금노동 전환패턴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결과는 <표7>과 같다.

분석결과, 인구학적 변수들 중 성별과 혼인상태만 비임금노동의 유형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여성에 비해 남성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속하기보다 비육체자영업자에 속할 개연성이 $P < 0.001$ 의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무전환 패턴에서는 남성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은 0.26배 감소하였으며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에서는 0.21배 감소했다. 이는 육체자영업 집단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유리함에 기인할 수 있다. 이직경험이 없는 유배우자인 경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2.84배의 증가치를 보였다. 이는 소규모적인 가정자영업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한편, 지역유형과 호적상태도 패턴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에서 순수한 비임금노동자는,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2.92배 증가하며, 임금노동자에서 전환한 비임금노동자는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1.82배 증가한다. 또한 임금노동자 - 비임금노동자 패턴에서 도시호적을 갖는 경우,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고용주에 속할 가능성은 각각 2.92배, 5.46배 증가한다. 이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시기 효과의 경우,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에서 개혁이전에 비해 1993년-2002년과 2003년-2016년 사이에 시작한 최초 직장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이 각각 10.58배, 9.64배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03년 이후 시장에서 불확실한 요소와 다양한 제한이 적어지면서 비교적 늦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임금노동자가 보다 나은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할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다른 한편, 2003년 이후 최초 직장을 갖게 된 임금노동자는 보다 젊은 노동인구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적 자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학력은 임금노동자가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대졸 이상일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동일한 결과가 이직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교육수준은 임금노동부문 내의 승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리 능력의 양성 및 인맥 쌓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고학력자가 임금노동부문에서 유리한 위치를 포기해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할 때 성공할 가능성은 저학력자에 비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 유무, 외국어 수준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당원신분이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상과는 다르지만 이 결과만으로 위계적 체제내의 권력

(positional power)이 비임금노동 부문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선 당원신분은 관료가 되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만 체제내의 권력에 대한 점유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Walder et al., 2000; Wu, 2006). 따라서 관료가 아닌 일반 당원은 시장에서 특별히 우세를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비임금노동자 중 당원의 비율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Wu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제 내의 다양한 이점으로 특히 도시에서 당원신분은 오히려 비임금노동자로 전환하는 데 저항적 요인이 될 수 있다(Wu, 2006). 이 결과는 오늘날 당원은 여전히 체제 내 임금노동부문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 독립변수인 판시에 직결된 변수들은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나 고용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패턴별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선, 판시에 대한 적극적인 구축·유지는 모두 비임금노동자에게 중요하다. 자주 식사초대를 할수록, 직장 경험이 없는 비임금노동자가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임금노동자로부터 전환한 경우 고용주가 될 승산이 3.67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다. 또한 사업을 소개해준 중개자도 비임금노동자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초 직업이 비임금노동인 경우, 중개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육체자영업자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자가 될 승산은 2.99배 증가하며 고용주가 될 승산이 5.96배 증가한다. 특히 중개자에 대한 신뢰의 효과는 $P < 0.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임금노동-비임금노동 패턴의 경우, 중개자의 유무는 육체자영업에 비해 비육체자영업에 들어가는 데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직접적인 거래를 대신 사업을 소개해주는 행위는 강한 연대에 의해 진행되는 ‘인정’에 대한 교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불확실한 제도적 환경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명성을 보증하는, 신뢰할 만한 판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표7>패턴별 다양한 비임금노동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석

	전환 없음(N=440)				임금노동자→ 비임금노동자(N=400)				
	→고용주		→비육체 자영업자		임금노동→ 고용주		임금노동→ 비육체자영업자		
	Coef.	Exp (B)	Coef.	Exp (B)	Coef.	Exp (B)	Coef.	Exp (B)	
남성	-0.504	0.60	-1.341***	0.26	-0.797	0.45	-1.551***	0.21	
배우자 있음	0.822	2.28	1.044**	2.84	-0.502	0.61	0.395	1.48	
연령 집단	(base=0. 15~29세)								
	30대	-0.246	0.78	-0.563	0.57	-0.631	0.53	-0.757	0.47
	40대	0.020	1.02	-0.454	2.84	-0.335	0.72	-0.845	0.43
	50대	0.020	1.02	-0.275	0.76	-1.765	0.17	-0.916	0.40
	60 세이상	0.030	1.03	-0.007	0.99	0.103	1.11	1.106	3.02
도시 지역	1.071**	2.92	0.478	1.61	0.712	2.03	0.596*	1.82	
도시 호적	0.749	2.12	0.369	1.45	1.697**	5.46	1.070**	2.92	
최초 직장 시작 시기	(base=0. 1978년 이전)								
	1979년- 1992년	-	-	-	-	0.840	2.32	1.535	4.64
	1993년- 2002년	-	-	-	-	1.508	4.52	2.359*	10.58
	2003년- 2016년	-	-	-	-	1.468	4.34	2.266*	9.64
현재 직장 시작 시기	(base=2002년 전)								
	2003년- 2012년	0.020	1.02	-0.061	0.94	0.294	1.34	-0.628	0.53
	2013년- 2016년	0.105	1.11	0.222	1.25	-0.512	0.60	-0.241	0.78
교육 수준	(base=0. 중졸미만)								
	중졸	0.499	1.65	0.474	1.61	0.403	1.50	-0.197	0.82
	고졸	1.052	2.86	0.693	2.00	0.295	1.34	0.116	1.12
	대졸이상	1.338	3.81	0.508	1.67	3.942**	51.5	2.864*	17.54
자격증 있음	0.461	1.58	0.443	1.56	-0.109	0.90	-0.434	0.65	
외국어 가능	0.623	1.86	0.828	2.29	-0.227	0.80	-0.923	0.40	
당원	0.814	2.26	0.041	1.04	0.095	1.10	-0.873	0.42	
자주 식사초대	0.908	2.48	0.826*	2.28	1.299**	3.67	0.642	1.90	
사업 소개자 있음	0.945*	2.57	0.451	1.57	0.718	2.05	0.676*	1.97	
소개자를 신뢰함	1.784***	5.96	1.095*	2.99	0.655	1.92	-0.216	0.81	

*** P<0.001 **P<0.01 *P<0.05

제 4 장 결론

오늘날 중국에서 개체공상호가 범죄자의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잊혀질 정도로 비임금노동자의 수와 종류는 급증하고 있다. 미디어에 의해 선정된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들은 개혁개방이라는 정책과 제도적 변화 덕에 성공한 사업가로 묘사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비임금노동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험일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 내 비임금노동의 양적인 확산과 다양성은 거시적인 차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제도적인 변화와 개인 행동의 상호작용을 통해야만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비임금노동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개방 이후 상이한 자본을 가진 개인이 비임금노동으로 진입할 때, 판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면서 중국 내 비임금노동의 증가가 갖는 특수성과 내부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임금노동자 중 거의 절반이 임금노동자에서, 그것도 주로 육체임금노동자와 서비스업종사자에서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비임금노동부문은 방대한 과잉 노동인구를 흡수함으로써 과거 계획경제시기에 노동력에 대한 소유 및 공급에 나타난 심각한 갈등을 완화시켰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비임금노동부문 내부에서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중국의 도시개발과 상업의 발전 덕에 상당한 수의 노동자가 도매, 요식,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를 청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고용주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한 육체자영업자 (예컨대 농민이지만 대부분 시간에 도시에서 임시적으로 건설공인으로서 노동하는 “농민공(农民工)”)은 비임금노동부문에서 상승이동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임금육체노동자에 비해 더 불안정적인 직장환경과 사회복지 보장의 부재를 직면하고 있다. ‘밑으로부터의 자본주의’에는 정책의 낙후성으로 쉽게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지, 그리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동법과 보험제도 등 다양한 보호에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중국 비임금노동의 다양성을 설명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드러냈다.

셋째, 학력이 높을수록, 당원일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판시를 적극적으로 구축·유지할수록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할 확률은 높아진다. 많은 인적 자본과 당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바꿔 말하자면 전통적인 엘리트는 여전히 안정적인 임금노동부문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임금노동부문에 진입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판시에 대한 구축과 이용에 따라 육체노동에서 고용주로 이를 때까지 다양한 전환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비임금노동을 최초 직장으로 삼은 사람은 보다 큰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판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판시는 일정 정도에서 다른 자본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으나 높은 교육수준과 발달한 판시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비임금노동부문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과거에 노동력 이동과 직업 전환을 엄격하게 통제하던 ‘통포통배’와 ‘고정공’ 등의 정책이 사라졌고 호적제도의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제한은 약해졌다. 그러나 호적에 의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른 차원에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의무교육 과정단계에 있어 지역격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동은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해 인적 자본을 중요시하는 임금노동부문에서 이들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중국 당국이 관료체계 내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법 체제를 개선하면서 관료들이 정치적 회색지대를 이용해 소득을 높이는 여지는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비임금노동 부문의 확산 과정에서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에게 판시가 다른 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대안적 통로를 안겨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점에

서 비임금노동 부문은 개혁 기간 동안 있었던 중국의 경제적·사회적 갈등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 구소련처럼 붕괴될 위기를 피하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사경제와 공경제 간의 갈등적·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밑으로부터의 중국 비임금노동 발전패턴은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게 유용할 수 있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시장화의 진전으로 종합시장 매대 뿐만 아니라 주택의 방 한 칸을 개조해 장사하는 집매대, 노점상으로 통하는 막매대, 포장마차 등도 성업 중이다. 또한 개인 투자의 활성화로 정육, 자전거 판매, 애완견 돌보는 사업까지 등장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이후 포진한 신흥 자본가 세력 ‘돈주’가 주도한 것이다. (박월일, 2015; 임을출, 2016) 이 점에서 북한의 비임금노동의 발전패턴은 동유럽이나 러시아에 비해 중국의 패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사용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완전한 직업체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이 개혁시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다음으로 판시가 비임금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예컨대 중개자와의 판시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명성을 보증함으로써 사업적 성공에 일조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시는 어떻게 상이한 메커니즘을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Alejandro Portes, Manuel Castells, Lauren A. Benton. 1989.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anerjee, B. 1983. *The Role of the Informal Sector in the Migration Process: A Test of Probabilistic Migration Models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for India*. *Oxford Economic Papers* Vol. 35(3): 399–422.
- Barry Naughton. 1995.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Oxford University Press.
- Bian Yanjie. 1994. *Guanxi and the Allocation of Jobs in Urban China*. *The China Quarterly*. Vol.140: 971 —999.
- . 1997. *Bringing Strong Ties Back In: Indirect Connection, Bridges, and Job Searches i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266 —285.
- Bian Yanjie & John R. Logan. 1996. *Market Transition and Persistence of Power: The Changing Stratification System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5): 739–58.
- Bruun, Ole. 1993. *Business and Bureaucracy in a Chinese City: An Ethnography of Private Business Households in Contemporary China*. Berkeley: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 Caroline O. N. Moser. 1978. *Informal Sector or Petty Commodity Production: Dualism or Dependence in Urb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6(9): 1041–1064.
- De George, R.T. 1993. *Competing with Integrity in International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233.

- Devine, Theresa J. & Nicholas M. Kiefer. 1991. *Empirical Labor Economics: The Search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Ellu Saar & Marge Unt. 2008. Selective Mobility into Self-employment in Post-socialist Transition: Early Birds, Later Entrants, Quitters and Shuttles.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 26(3): 323-349
- Eric Hanley. 2000. Self-employment in Post-Communist Eastern Europe: a Refuge from Poverty or Road to Rich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3(3): 379-402.
- Fields, G. S. 1975. Rural-Urban Migration, Urba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nd Job-Search Activity in LDC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2): 165-187.
- George Steinmetz & Erik Olin Wright. 1989. The Fall and Rise of the Petty Bourgeoisie: Changing Patterns of Self-employmen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5): 973-1018
- Gordon Marshall. 1998. *A Dictionary of Soci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11360 — 1380
- .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1(3): 481-510
- . 1999. Coase Encounters and Formal Models: Taking Gibbons Seriousl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4: 158-162.
- Hagen Koo. 1976.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s* Vol. 54(4): 775-787.

- Harrison C. White. 1992. *Identity and Control: A Structural Theory of Social Act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57–78.
- H. Davies, T.K.P. Leung, S.T.K. Luk, and Y.H. Wong. 1995. The Benefits of “Guanxi”.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24: 207 - 214.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1984. *Urbanisation, Informal Sector and Employment: A Progress Report on Research.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World Employment Programme, Geneva.
- Ivan Szelenyi & Eric Kostello. 1996. The Market Transition Debate: Toward a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1(4): 1082–1096.
- Ivan Szelenyi. 1978. Social Inequalities in State Socialist Redistributive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Vol. 19(1–2): 63–87.
- _. 1988. *Socialist Entrepreneurs: Embourgeoisement in Rural Hungar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Jaeyeol Yee. 1993.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Self-employment in A Developing Economy: An Analysis of Job-shift Rates in The South Korean Urban Labor Marke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 22(1): 1–21.
- John S. Earle & Zuzana Sakova. 2000. Business Start-Ups or Disguised Unemployment? Evidence on the Character of Self-employment from Transition Economies. *Labour Economics*. Vol. 7(5): 575 - 601.
- Karl Polanyi.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Farrar & Rinehart.

- Keith Hart.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 11(3): 61–89.
- Kipnis, A. B. 1997. *Producing Guanxi. Sentiment, Self, and Subculture in a North China Village*.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Luo, Jar–Der. 1997. The Significance of Networks in the Initiation of Small Business in Taiwan. *Sociological Forum* Vol. 12(2): 297–319.
- M. M. Yang. 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Oi, J. C. 1999. *Rural China Takes Off: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Re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amela A. Popielarz & J. Miller McPherson. 1995. On the Edge or In Between: Niche Position, Niche Overlap, and the Dura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1(3): 698–720
- Péter Róbert & Erzsébet Bukodi. 2000. Who are the Entrepreneurs and Where Do They Come From?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Before, Under and After Communism in Hungar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Revue Internationale de Sociologie* Vol. 10(1): 147–171
- Qian, Yingyi L. 2000. The Process of China's Market Transition (1978–1998): The Evolutionary,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Vol. 156(1): 151–71.
- Richard Arum & Walter Müller. 2004. *The Reemergence of Self–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lf–employment*

- Dynamics and Social Inequal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na–Tas, Akos. 1994.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0(1): 40–69.
- Seymour M Lipset & Reinhard Bendix. 1959. *Social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imeon Djankov, Yingyi Qian, Gérard Roland and Ekaterina Zhuravskaya. 2006. Who Are China's Entrepreneu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2): 348–352
- Staniszki, J. 1991. *The Dynamics of Breakthrough in Eastern Europe - the Polish Exper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san Young. 1995. *Private Busines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Armonk, New York: M.E. Sharpe.
- Theodore P. Gerber. 2001. Paths to Success: Individual and Regional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ntry in Post–Communist Russi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Vol. 31(2): 3–37
- . 2002. Structural Change and Post–Socialist Stratification: Labor Market Transitions in Contemporary Russi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7(5): 629–659
- . 2004. Three Forms of Emergent Self–employment in Post–Soviet Russia: Entry and Exit Patterns by Gender. Richard Arum and Walter Müller (eds). *The Reemergence of Self–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lf–employment Dynamics and Social Inequality* 277–309
-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1): 138–148.

- Victor Nee. 1989a. A Theory of Market Transition: From Redistribution to Markets in State Soci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4(6): 63–81.
- _. 1989b. Peasant Entrepreneurship and the Politics of Regulation in China. In V. Nee & 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in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University Press.
- _. 1996. The Emergence of a Market Society: Changing Mechanisms of Stratification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1(4): 908–949
- Victor Nee & Sonja Oppen. 2012. *Capitalism from below: Market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der, A. 1986.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alder, A & Donald J. Treiman. 2000. Politics and Life Chances in a State Socialist Regime: Dual Career Paths into the Urban Chinese Elite, 1949–1996.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2): 191–209.
- Walter W. Powell.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 295–336
- William F. Maloney. Informal Self-employment: Poverty Trap or Decent Alternative? G. S. Fields et al. (eds.). *Pathways Out of Poverty*. 65–82
- Wu Xiaogang. 2006. Communist Cadres and Market Opportunities: Entry into Self-employment in China, 1978–1996. *Social Forces*. Vol. 85(1): 389–411
- _. 2003. Embracing the Market: Entry into Self-employment in

- Transitional China, 1978 –1996. William Davidson Working Paper. No. 512.
- Wu Xiaogang & Xie Yu. 2003. Does Market Pay Off? Earnings Returns to Education in Urban Chin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8(3): 425–442.
- . 2005. Market Premium, Social Process and Statistic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0(5). 865–870
- Yan, Yunxiang. 1996. *The Flow of Gifts: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s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 Yueh, Linda. 2009. Self–employment in urban China: Networking in a transition economy, *China Economic Review*, Vol. 20(3): 471–484
- . 2009. China’ s Entrepreneurs. *World Development* Vol. 37(4): 778 – 786
- Zhang Junfu & Zhao Zhong. 2015. Social–Family Network and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Temporary Rural – Urban Migrants in China. *IZA Journal of Labor & Development*. Vol. 4(4)
- Zhou Xueguang. 1995. Partial Reform and the Chinese Bureaucracy in the Post–Mao Er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8: 440–68.
- . 2000a. Economic Transforma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Evidence from Panel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5(4):1135–1174.
- Zhou Xueguang, Nancy Brandon Tuma, Phyllis Moen. 1997. Institutional Change and Job–Shift Patterns in Urban China, 1949 to 1994.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3): 339–365

- 邊燕傑 & 張文宏(Bian Yanjie & Zhang Wenhong). 2001. 經濟體制，
社會網絡與職業流動. 中國社會科學 第2期.
- 蔡昉(Cai Fang),都陽 (Du Yang), 王美艷(Wang Meiyuan). 2005. 中國勞
動力市場轉型與發育. 商務印書館.
- 陳玉明 (Chen Yuming) 2006. 影響中國人力資本提升的制度變遷研究. 內
蒙古大學. 碩士論文
- 費孝通(Fei Xiaotong). 1985. 鄉土中國. 三聯書店.
- 陸學藝(Lu, Xueyi). 2002. 當代中國社會階層研究報告. 社會科學文獻出版
社.
- . 2004. 當代中國社會流動.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李春玲(Li Chunlin). 2005. 斷裂與碎片：當代中國社會階層分化實證分析.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孫立平(Sun Liping). 2002A. 總體性資本與轉型期精英形成. 浙江學刊 第3
期.
- . 2002B. 實踐社會學與市場轉型過程分析. 中國社會科學 第5期.
- 李猛&周飛周&李康(Li Meng & Zhou Feizhuo & Li Kang). 1996. 單位：
制度化組織的內部機制. 中國社會科學季刊（香港）第16期.
- 羅家德(Luo Jarde). 2007. 中國人的信任遊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 2010. 自組織——市場與層級之外的第三種治理模式. 比較管理 第4期.
- . 2012. 關係與圈子——中國人工作場域中的圈子現象. 管理學報 第2期.
- 羅家德&王競(Luo Jarde&Wang Jing). 2010. 圈子理論：以社會網的視角
分析中國人的組織行為. 戰略管理 第1期.
- 羅家德&李智超(Luo Jarde&Li Zhichao). 2012. 中國人的社會行為與關
系網絡特質. 社會科學戰線 第1期.
- 陸世宏(Lu Shihong). 2015. 關於改革開放史分期研究的相關問題. 桂海論
叢. 第6期.
- 宋時歌(Song Shige). 1998. 權力轉換的延遲效應:對社會主義國家向市場轉
變過程中的精英再生與循環的一種解釋. 社會學研究. 第3期

- 謝恒(Xie Heng). 2018. 湖南民營經濟發展研究. 西南財經大學出版社
- 楊國樞(Yang Guoshu). 1993. 中國人的社會取向: 社會互動的觀點. 載楊國樞, 余安邦. 中國人的心理與行為: 理論與方法篇. 臺北: 桂冠圖書公司.
- 葉靜怡(Wang Jingyi), 王瓊(Wang qiong). 2013. 農民工的自雇備選擇及其收入. 財經研究. 第1期
- 장호준. 2011. 중국의 비공식경제론과 그 사회정치적 함의. 국제 지역연구 20(3): 111-149.
- 장영성. 2007. 체제전환기의 중국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 국제노동브리프 5(11): 3-12.
- 임을출. 2016. 김정은 시대의 북한경제: 사금융과 돈주. 한울아카데미.

Abstract

A Study on the Increase and Internal Diversity of Non-wage Workers in China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Liu Shuyi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how does the large increase in non-wage worker be achieved in China, wher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s full of uncertainty? What does the internal diversity of non-wage worker mean for the so-called socialist market economy?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of transition to different types of non-wage worker by tracking the work transition trajectory in China's special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Russia, non-wage worker has expanded rapid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elite's active efforts and a series of top-down reforms. However, in China's progressive

development model, the informal norms embedded in social relations have played a critical role. Therefore, in addition to human capital and party membership, this stud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 (guanxi) on transition to non-wage work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the increase and internal diversity of China's non-wage worker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China Labor-force Dynamics Survey. First of all, the diversity of non-wage work is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overall non-wage worker. Next, after separating non-wage worker without transition experience and non-wage worker who transferred from wage worker the effects of different factors, especially the guanxi, on various results of transition (employer, non-manual self-employed, and manual self-employed) was examined by conduct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analyzing the transition trajectories of non-wage workers, nearly half of the non-wage workers were found to have shifted from wage workers, mainly those who were manual wage workers and service workers. Secondly, the internal heterogeneity and diversity were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the types of non-wage worker. On the one hand, the development of China's urban development and commerce has result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employers accumulating wealth through wholesale, catering, and construc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anual self-employed who engaged in temporary manual labor were faced with a more unstable

work environment and lack of social security guarantees than wage manual workers.

Finally,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Communist Party member compared with non-Communist Party member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he non-wage worker sector. However, as the relationship is actively built and maintained, the probability of entering the non-wage labor sector has increased. Additionally, it is relatively easy to enter the non-wage labor sector, but actively building and maintaining a relationship has a crucial impact on the individual's upward mobility. The more frequently they invite others or are invited to a meal, and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the business intermediary,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employer or non-manual self-employed than a manual self-employed. In addition, when non-waged workers who transferred from wage workers have a high educational level and a developed social network at the same time,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n employer or non-manual self-employe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nual self-employed.

By identifying the mechanisms of entering various non-wage jobs this study suggests that non-wage job has provided an alternative pathway for both elites and ordinary workers. This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understanding how non-wage jobs cushioned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during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during the reform period. Furthermore, considering the market called "Jangmadang" in North Korea is increasing, the pattern of China's non-wage job development analyzed in this study suggests ways to overcome the conflictual and complementary relations

between the private economy and the public economy.

Keywords : China, the reform and opening up, non-wage worker, increase, internal diversity, guanxi

Student Number : 2016-22066